

지역 소식통

김제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부터 신고해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상반기 상속 부동산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신고 대상자(상속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상속인 간 협의가 기한 내 이뤄질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동 명의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주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는 매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름휴가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30일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50여명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선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와 경찰서 그리고 민간단체(패트콤,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의소)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 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했으며 주류취급 업소,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부착여부,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준수여부 등을 단속하고 표지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표지를 배부해 현장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글로벌 미래인재 키운다

지방시대위원회 4대 특구 중 2개 특구 선정 쾌거 이뤄

육아·돌봄 체계 구축, 공교육 활성화 등 4대 과제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진순)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6월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중 2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서 시는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미래사회의 중심 골든 시드(Golden Seed) 양성 특구'로, 목표를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정

주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비싼 종자를 이르는 '골든시드'를 비전에 넣은 것은 가을이면 온 들판이 황금물결로 가득차는 김제의 지리적 특징과, 지역특화로 종자산업이 발달한 산업적 특징, 그리고 미래에 황금종자가 될 아이들이 김제에 터를 잡고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시와 김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두 기관은 추진 과제로 △지역과 함께하는 육아·돌봄 체계 구축(함께 사는 김제), △공교육 활성화 및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실력을 키우는 김제), △정주 여건 개선 및 찾

아오는 김제 만들기(살고 싶은 김제), △학생 꿈을 응원하고 실력을 키우는 교육(미래를 여는 김제)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시와 김제교육지원청은 신청 공고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 기관장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양측 실무진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김제특장분원 및 HR E&I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노력한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김제시의 도전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매우 기대가 높다"면서 "두 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출산·육아휴직 따른 공백 최소화... 7일부터 원서 접수

완주군이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5명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 병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 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완주군에서 이번엔 신규 채용하는 한시임기제는 모두 9호(9급) 상당이며,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기업 포함) 사무행정 업무 경력이 있으면 된다.

원서접수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작성해 완주군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사교육팀(063-290-226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말부터 임용될 예정이며, 완주군 내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배치되어 각종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완주군 행정지원과장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통해 휴직자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맞벌이·한부모가정 아동급식 서비스 시작

시 지사협·한국나눔연맹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31일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영세)와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이 협력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 초등학생들에게 도시락(반찬)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 상황 및 경제적 문제로 방학 중 급식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반찬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업비는 전액 (사)한국나눔연맹에서 지원하며, 김제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 아동에게 도시락(반찬)을 직접 배달한다.

관내 아동(중위소득 120%이하)을 대상으로 주 1회, 일주일 분량의 도시락(반찬)이 배달되고,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2차례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한국나눔연맹은 '아동 도시락 사업'을 통해 성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위기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천사무료급식소 운영으로 월 3,6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월 200세대 재가 반찬 및 우유를 배달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50세대에 도시락 배달을 시행하는 등 고독사 발생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베트남 하이퐁시 "완주 스마트빌리지 배우러 왔어요"

고위공직자 8명 방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일정으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직자 8명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을 방문해 스마트빌리지 구축 사례를 배웠다.

완주군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했던 LoRaWAN기반의 버스정보안내, 전동보장구 사고감지 서비스 구축, 우수기관 챔피언상을 수상한 스마트빌리지 구축 우수사례를 소개해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직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이퐁시 응우옌 호앙 룡 빈바오(구)당위원회 서기를 비롯한 교육단 일행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인구 450만 명의 항구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하이퐁시에 큰 도움이 되도록 구축 및 운



행안전본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일정으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직자 8명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을 방문해 스마트빌리지 구축 사례를 배웠다.

영 사례를 소개 해주신 완주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동민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완주

군의 우수사례가 하이퐁시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3월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

은 3월부터 9월까지 1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

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물로 방문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초등 미션 챌린지 프로그램 진행

'책 제목 N행시'

김제시립도서관은 2024년 8월 초등 미션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책 제목 N행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초등 미션 챌린지는 3월 '독서 퀴즈'를 시작으로 '5글자로 말해요' '초성 맞추기' '그림연상 퀴즈' 책 제목 찾기 등 다채로운 미션들을 제시하여 책 읽기에 흥미를 돋우고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초등 미션 챌린지는 '책 제목 N행시'로 '전천당' '슈퍼포기' '슈퍼거북' '두고두고지'

로 구성된 총 4가지 제목 중 한 가지를 골라 N행시를 작성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SNS를 통해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해 참여하거나 김제시체육관 임시 자료실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응모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미션 챌린지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흥미가 증가될 거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션으로 이용자들을 찾아갈 것이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